

<수덕사 자원봉사센터 개원식 총무원장 치사안>

치사

먼저 수덕사 자원봉사센터 개원을 축하드리며, 자원봉사센터를 격려해주시기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하신 내외 귀빈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자원봉사자 여러분!

자원봉사활동은 이제 우리 지구촌 어느 지역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지식정보화시대의 인류복지 향상을 위한 메카니즘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습니다.

지난 세기에 복지국가를 지향했던 많은 복지선진국들이 안정된 시민복지사회를 발전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힘이 된 것은 누가 보더라도 서로 상부상조하는 시민정신과 함께 확산된 자원봉사운동이었습니다.

우리나라 또한 시민복지 사회를 지향하고 있지만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국민들의 복지의식과 참여가 없다면 복지사회로 가겠다는 꿈은 그야말로 비현실적인 꿈에 불과할 것입니다.

일찍이 우리 불교계는 지난 20여년 전부터 이러한 자각으로 자원봉사활동 확산을 위해 종단적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1995년에 조계종 자원봉사단을 출범시키고, 전국 유수 사찰의 관계자들을 자원봉사코디네이터로 교육시켜 지역활동의 동기를 부여했으며, 매년 전국 순회교육을 통해 종단의 모든 불자들이 봉사활동에 참여하도록 노력해왔습니다.

그 결과 이제는 전국의 1,000여개 불교 사회복지시설을 중심으로 10만명의 상시봉사자가 활동하는 조직으로 발전하였습니다.

국가재난과 같은 유사시에는 종단의 전국사찰이 자원봉사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조직이 갖춰졌으며,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는 바와 같이 태안반도 기름유출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여기 계신 수덕사와 말사 스님, 신도님들을 중심으로 전국 스님과 봉사자들이 대거 봉사활동에 참여해 봉사활동의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친애하는 사부대중 여러분!

이제 우리 불교 자원봉사활동은 중앙 차원의 조직활동과 함께 각 지역사찰이 중심이 되어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극복하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봉사활동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미 전국의 사찰에서 많은 활동을 전개하고 있지만, 필요에 따라 서로 네트워킹을 통해 역량을 결집함으로써 국민복지발전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

오늘 자원봉사센터를 개원하는 수덕사야말로 기라성같은 역대 조사스님들의 수행가
풍을 이어서 우리 한국불교가 상구보리 하화 중생하는 대승불교 실천으로 회향하는
모범적 선례가 될 것입니다. 오늘 조계종에서 최초로 결성된 교구본사 불교자원봉
사센터 1호인 수덕사 자원봉사센터가 1세기 전 수덕사에서 시작한 수행의 햇불처럼
전국방방곡곡에 전달되어 한국불교의 일대 혁신을 일으키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참석하신 사부대중 여러분의 앞날에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불기2554년 10월 30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